

비전성남 VISION

Vision Seongnam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03	성남시 및 의회 청사 기공식
08-09	사진으로 읽는 성남
11	겨울나기
13	성남사람들
16	성남의 향기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공보담당관실 | 주소 우)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번지(태평2동 3309번지) | 전화 729-2075~6 | 팩스 729-2089 | 홈페이지 www.cans21.net



썩썩~ 뽕뽕~

야외스케이트장 12월 22일 개장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 성남종합운동장

성남시는 오는 12월 22일부터 겨울방학 기간 동안 수내동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사진)과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야외용 스케이트장 2개소를 운영한다.

이곳 스케이트장은 12월 22일 오후 4시에 개

장식을 갖고 내년 2월 23일까지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9시이며, 사용료는 1인 2시간 1천원(스케이트 및 안전모 대여료 포함)이다.

매주 월~금요일(주5회)에는 1시간(오전

10~11시)씩 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스케이트 교실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및 성남 종합운동장 내 야외용 스케이트장은 도심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과 함께 겨울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으로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호응받는 겨울철 레저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팀 729-3051~6
사진 · 공보담당관실 강정식

기업하기 좋은 성남 만든다



◀ 11월 4~11일 러시아 및 터키에 파견된 성남 시 시장개척단이 수출상담을 벌이고 있다.

▼ 성남시는 11월 2일 시청에서 성남시 기업에 로저리 A* T/F팀이 발족했다.



성남 기업애로처리 A* T/F팀 운영

성남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공무원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성남 기업애로처리 A* T/F팀 및 지원단'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성남 기업이 전국 일등(A*)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태스크포스팀(A* T/F팀)"은 기업애로 지원단을 포함해 성남산업진흥재단·성남상공회의소·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총 10개 유관기관 90명의 인력으로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 기업애로 발생 시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히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애로를 표명한 기업체에 A* T/F팀 현장방문반과 관련기관이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는 복합적인 애로사항은 T/F팀의 실무검토 후 해결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적 행정을 펼친다는 것이다. 상담내용은 공

장 신증설, 주변 인프라, 자금, 판로수출, 기술·인증, 세무회계, 특허, 고용 등 경영전반에 걸친 문제다.

경영 일선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은 성남시(729-2929), 성남산업진흥재단(782-3032), 성남상공회의소(781-7904),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749-9640)과 상담하면 된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729-2631

기업자금 지원

성남시는 중소기업(전업율이 30%이 상인 업체) 및 벤처인증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분양)자금 등을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협약은행은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751-0162), 씨티은행 성남공단지부(743-0700) 등 9개 기관이다.

또한 경기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FTA 특별경영자금(설비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과 경기도 특별경영자금(업체당 5억원 이내)이 융자 지원된다.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709-7733
<http://gg.go.kr>

러시아 시장개척단 1,377만불 계약 성과

성남시는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터키(이스탄불)에 '2007 러시아 및 터키 시장개척단'을 파견, 1,377만불의 계약을 체결했다.

시가 주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협조로 이뤄진 이번 파견은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브릭스(BRICS)의 일원인 러시아와 터키 시장 개척을 위한 것이다. 성남시에서는 7개 업체(주)우주무역, (주)SWC, 한국일측, (주)유니패스, (주)두원코, (주)나래미디어, (주)S&G바이오텍)가 참가, 총 59건 2,592만불의 수출상담과 36건 1,377만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729-2643

시·정·알·림

동사무소 명칭, '동 주민센터'로 변경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확산되면서 9월 1일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됐다.

기존 민원행정업무 중심에서 탈피해 복지·고용·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선진기관으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망(www.oklife.go.kr)에 접속하면 사이버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행 '주민자치센터'는 명칭 변경시 주민 혼란 가중 및 예산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3

황송터널 통행료 폐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금광동을 연결하는 황송터널의 통행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시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이곳을 지나는 소형차 200원, 대형차 3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왔으나 교통체증 완화와 이용 차량의 편의를 위해 폐지하기로 했다. 황송터널은 지역개발기금 80억원과 시비 22억원을 들여 지난 96년 10월 준공했다.

도로과 도로행정팀 729-3595

2008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성남시는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3만8천동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이 현지방문, 주택의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 24개 항목을 정밀조사한다. 이번에 조사된 가격은 내년 6월 30일 최종 공시되며 부동산 관련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정과 시세운영팀 729-2693

성남시정보문화센터로 명칭변경

지난 11월 6일 성남시 조직개편으로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의 명칭이 성남시정보문화센터로 변경됐다. 하부조직으로는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여성문화회관이 있다.

관리과 관리팀 729-4595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 실시

다양한 현장경험 기회... 12월 11~14일 접수



성남시는 관내 거주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를 마련, 오는 12월 11

일부터 14일까지 참가 희망자를 접수받는다. 내년 1월 2일~2월 29일 40일간 실시되는 이번 체험연수 참가자는 300여명으로 성남시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근무조건은 월~금 1일 4시간 1만7천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차상위계층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자녀를 우선 선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기존 방문접수와는 달리 시 홈페이지(www.cans21.net)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연수대상자 명단은 12월 26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시는 이번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가 청년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예비 취업자의 경험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졸업 전 다양한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정보센터 729-2857~9

버스정류장 승강장 130곳에 노선안내도 부착

성남시 지역 내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노선안내도가 추가 설치됐다. 관내 총 367개소 중 노선안내도가 설치되지 않은 주요도로 버스 승강장 130개소에 인접 정류장 안내도와 노선 안내도를 부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교통지도과 버스정책팀 729-3711



성남시 및 의회 청사, 2010년 여수동에 들어선다

태양열·지열 활용한 친환경 건물... 11월 17일 기공식



성남시 및 의회 새 청사가 2010년 여수동에 들어선다. 성남시는 지난 11월 13일 '시청사 및 의회 건립 추진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성남시·시의회 관계자,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7일 오후 2시 중원구 여수동 152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2010년 준공되는 신청사(조감도)는 대지면적 7만4452㎡, 연면적 7만2746㎡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시청과 의회, 문화공간으로 지어진다.

사업비는 공사비 1540억원, 토지매입비 1600억원 등 총 3222억원이 들어간다.

청사외관은 스텔스기 모양으로 외벽은 알루미늄 기둥에 컬러 복층유리로 사용해 단열효과도 높고 현대적인 느낌도 살린다. 의회청사를 별도

건물로 설계하지 않고 시청사와 연결해 '화합'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유리벽터스와 인텔리전스 기능을 모두 갖춘 최첨단으로 계획하고 있다.

부지의 43.6%를 공용시설(1만1501㎡)과 주차시설(2만998㎡)로 할애하고 문화의 거리, 시민광장, 대공연장 등을 설치해 '공익 속 시청사'로 만든다. 또한 여성정보지원센터, 문화강좌실, 자원봉사센터, 종합자료관, 대강당 등이 들어선다.

새 청사는 특히 태양열과 지열, 빗물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건물로 지어진다. 청사 지붕에 태양열 지열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하루 50kW)로 지하 주차장과 옥외 조명을 공급하고, 땅속에 코일을 박아 얻은 지열을 민원실 냉·난방용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빗물은 저장했다가 화장실 세정용수나 조경용수로 쓴다.

또 외부의 공기를 땅속에 설치한 쿨루브 시스템을 거쳐 아트리움으로 들어오도록 설계했다. 시

청과 의회 사이에 배치된 아트리움은 그 자체가 자연채광이 되는 친환경 공간이다.

성남시는 1983년 건립된 태평동 청사가 분당·판교신도시 개발로 인구(11월 현재 95만명)가 증가하고 민원과 행정수요가 늘자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현 태평동 시청사 자리에는 시립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회계과 신청사건립팀 729-2782
박경희 기자 pkh2234@hanmail.net

성남시 수상 연이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최우수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7년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시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자녀 양육하기 좋은 환경 성남만들기'를 목표로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기구를 만들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사회 환경조성 추진에 노력해왔다.

결혼, 임신·출산, 양육, 인식개선·홍보 등 4개 분야에 총 345개 대응부서를 지정 운영, 전부서가 저출산 대응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2008년에는 69개 사업이 신규 확대 추진될 예정으로 육아수당을 도입, 셋째자녀 이상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조례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모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검진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아동교육 프로그램을 1개 이상씩 운영토록 해 자녀양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729-2832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우수기관'



성남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한 2007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10월 25일 선정됐다.

시는 △수소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선해 2002년부터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 382대의 천연가스버스가 운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천연가스 청소차 4대도 천연가스 자동차로 보급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앞장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천연가스버스는 청정성과 안전성이 뛰어나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대체에너지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729-3161

상수도사업 경영평가 '전국 1위'

성남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2006년도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성남시는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 조직·인력 구조혁신, 민간위탁 검침업무제 도입 등으로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한 현실화를 기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는 성남시가 상수도를 경영함에 있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룬 가운데 수익자의 추가부담이 아닌 원가절감과 대민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결과라는 평이다.

성남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성남시는 명실공히 상수도경영혁신 대상지역으로 떠오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물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행정자치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도행정과 기업회계팀 729-4052

'살기좋은 10대도시'에 성남시 선정

성남시가 한국언론인포럼(회장 윤명중)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살기좋은 10대도시'에 선정됐다.

이번 10대도시 선정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진행됐다.

살기좋은 10대도시는 성남시 외에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경남 창원시, 경기 고양시, 부산 해운대구,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전남 순천시다.

포럼은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경기도와 울산시, 경기 이천시·파주시, 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2~4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주택건립 협약 체결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금호아시아나 그룹과 지난 10월 29일 성남 시청 상황실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지역난방공사 및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건축비를 전액 부담해 주거복지시설을 건립, 시에 거주하는 소외된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주택은 중원구 성남동 3292번지(구 성남동사무소) 부지에 건축면적 574.6㎡, 연면적 1,15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내년 6~7월 경 완공을 목표로 지어진다. 주차장 경로당 휴게실 관리사무소 봉사자실 체력단련실과 전용면적 8~10평 규모의 원룸형 주거복지주택 1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주거복지시설 건립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사회공헌사업의 공감대를 형성, 타 지자체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729-2872

성남하대원시장 수세식 이동화장실 설치

성남시는 성남하대원시장(농수산물)을 찾는 시민들의 공중위생 편의를 위해 시장(중원구 하대원동 266-1,2번지) 내 노후화된 목재재래식 화장실 2동을 최신식 수세식 이동화장실로 교체했다.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는 전자식센서에 의한 통합 제어로 실내등·외등의 자동점멸, 사용중임을 알리는 표시, 실내 냉난방 시설, 음성멘트, 음악소리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돼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후화로 인한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성남하대원시장 내 화장실은 앞으로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 성남하대원시장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해 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한편 화장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설물을 깨끗이 이



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중위생 취약지역에 이동식 및 신축화장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729-3192

중원구 저지대 주민, 침수 걱정 던다

하수역류방지기·배수분기구 설치... 내년 1월부터 의무화 추진

성남시 중원구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침수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중원구는 지역내 반지하 거주민 등 저지대 거주 인구가 4,300가구 총 1만 2,900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내년 1월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방지 시설인 하수역류방지기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하수관로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공사 시 공공관로의 파손과 접합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분기구 사용도 의무화한다.

사업대상시설은 지역 내 침수예상

건축물과 신축·증축·개축 등으로 배수설비 공사가 수반되는 모든 건축물이다.

이를 위해 중원구는 내년 1월부터 침수예상 주택을 조사해 대상주택에 하수역류방지기과 배수분기구를 설치한 후 건축주에게 인수인계하기로 했으며, 배수설비가 수반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배수설비 설치조건에 하수역류방지기 및 배수분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배수설비 준공시 조치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오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사업은 특히 침수로 인해서

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에 우선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총 1억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원구는 이번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기존 침수 주택의 시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하수역류기는 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어 노후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효율적으로 차단, 악취로 인한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원구 건설과 소하천관리팀 729-6371~4

여성복지회관 2008년도 수강생 모집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에서 11월 28일부터 2008년도 제44기 정규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규개설 과목 '인터넷 쇼핑물 만들기', 한식조리기능사과 등 23개 과목의 실무지향적인 교육으로 꾸며진다. 18~60세 성남시민 여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1일까지 57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11월 28, 29일 이틀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접수(수강료 면제)한다. 수강료는 5만원이며 접수당일 현금 납부해야 한다.

가족여성과 복지관운영팀 729-2951~5

온라인 화장예약 접수 실시

성남시가 방문 및 전화로 해오던 화장예약을 12월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성남시 영생사업소 홈페이지(www.skyland.or.kr)에 접속해 고인성명 화장일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등재하면 화장예약 접수가 완료된다. 화장신청은 발인 당일 사업소 민원실에서 사망진단서 원본 및 사용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예약접수시기는 발인 4일전, 접수시간은 24시간 무휴다.

영생사업관리소 행정팀 729-3251

시각장애인 방문대출 서비스 안내

분당도서관은 신체상 불편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를 직접 집으로 방문,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시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후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1회 5권까지 3주 정도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분당도서관 장애인열람실은 점자도서 등 자료 3,695점, 음성지원PC, 녹음도서 청취용 오디오, 약시사용 문자확대기 등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을 갖추고 시각장애인의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어린이실 내 모자열람실에 시각장애인가정 어린이용 통합도서를 비치해두고 이들 가정 어린이의 언어습득을 지원하고 있다.

분당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667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성남시에서 여성근로자를 위해 건립한 여성임대아파트 '다솜마을(중원구 광명2동 2528번지) 입주자를 연중 모집한다. 대상은 성남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29세 이하 미혼여성 근로자이며, 입주우선순위는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제조업체 기타 근로자 △기타 산업체 근로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업복지사업 종사자 순이다.

공단 홈페이지(www.simc.or.kr)이나 시 홈페이지(www.cans21.net)에서 입주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 통보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여성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732-7555, 752-9395

정성들인 손맛! 김장 담그기 소비자교육

성남시 농업기술센터는 11월 28일(수) 오후 2시 센터 내 4층 대강당에서 '정성들인 손맛! 김장담그기'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천일염 고르는 법, 김장채소 선별법, 절이기, 담그기 등의 내용을 요리연구가 강순의 선생의 실습과 강의를 통해 알려준다. 이번 강좌는 우수 농산물을 이용,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젊은 도시주부들에게 전통방식의 김장담그기 방법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 홈페이지(www.snagri.co.kr)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성남시농업기술센터 생활기술팀 729-4032



우리 고장 기업 탐방(5) | 2007 성남중소벤처기업대상 (주)디지털아리아

모바일 플래시 애니메이션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휴대폰 대기화면 등 휴대폰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GUI(Graphic User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우측 그림)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출시하고 있는 (주)디지털아리아(분당구 정자동 파크뷰오피스타워)는 장덕호(48·사진 위) 대표와 임직원 87명 중 85%가 개발인

원(2003.9) △애니 다이얼 애니메이션 관련 국내특허 취득(2005.9), 국제특허출원(2006.7) △대한민국 정통부 모바일 기술상(2007.11) 취득, 디지털아리아의 주요 기술이력이다.

이러한 특허를 갖고 마케팅을 한 결과 좋은 기술을 인정받아 국내에선 삼

는 “모바일 쪽은 아직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IT기술도 유명하지만 모바일 쪽은 전세계 선두에 있다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매출을 내기 전 금전적 어려움도 많았고, 대기업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가면 기다리라고 해놓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쓸 때 허무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보병을 얼마가지고 있는냐가 아니라 특수부대를 얼마 가지고 있는냐가 관건이라며 여유를 부린다.

장 대표는 “7년 동안 노력한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평가받고 싶어서 성남중소벤처기업대상에 도전했는데, ‘대상’ 수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어서 영광스럽다”며 다른 좋은 업체도 많이 있는데 큰상을 받게 된 것은 더 잘했다고 주신 결과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 대표는 1년에 한 번씩은 전 직원과 클래식 콘서트를 간다. 예술을 좋아하고 알아야 업무에도 능률이 오른다는 것이 그의 경영철학이다. 11월 16일 예도 전 직원이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카르멘에 흥뻐 빠져들었다.

장 대표는 이제 컴퓨터 없이 살 수 없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콘텐츠 제공,

휴대폰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시스템을 개발 제공하는

(주)디지털아리아가 지난 10월 30일

‘2007 성남중소벤처기업대상’을 수상했다.

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 대표는 창업하기 전에 대덕 연구단지에서 17년을 근무했다. 연구소에서 수많은 연구를 하지만 결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2000년 6월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창업의 첫발을 내딛는다.

△모바일 벡터 그래픽 기술 및 서비스 모델에 대한 국내특허 취득, 국제특허 출원(2003.11) △와이드 비유 기술 개발 및 국내특허(2005.7), 국제특허출

성전자, KTF, SK텔레콤, 스카이라이프, 삼성테크윈, 맥시언, 게임빌, 컴투스 등등 많은 기업에 자사 모바일 그래픽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합작사인 중국의 (주)북경 신주동체 이동기술 유한공사, 푸션 캐피탈그룹(중국 IT 랭킹 1위) 등에도 현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경 회사 상장도 준비하고 있는 장 대표. 자사 기술을 세계 각국에서 쓰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는 그

듯이, 모바일 분야는 휴대하고 다니는 생활필수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왕이면 직원으로 성남에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뽑고 싶다고 유명 기업·분야도 좋지만 벤처기업에 도전해

보는 것도 전망이 밝다고 전한다. 프로그래머나 그래픽 콘텐츠, 플래시 애니메이션, 마케팅 쪽에 자질이 있는 사람은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디지털아리아 786-7728
박문숙 기자 moons4326@hanmail.net

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뀐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호적

- 01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한 사람마다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호적제 폐지
- 02 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된다.
- 03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01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신고하고 자의 출생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단,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02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 자녀의 성 변경을 신고하면 된다.(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없음.)
 - 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를 구해 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받아야 한다.
 - 03 친양자 입양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로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
-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전자민원센터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 12월 1~17일

▶ 종합부동산세는?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부동산 기준 부과대상인 지 여부 판정
-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 별도합산토지(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서비스업용 등의 사업용토지)로 구분해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상가·빌딩 등 건물지체는 과세대상 아님)
- 기준금액=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합산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 있음.

과세대상	합산방법	과세기준금액
주택	세대별 합산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3억원
별도합산토지	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40억원
별도합산과세특례		개별공시지가 200억원

▶ 종합부동산 신고납부는?

- 언 제 2007.12.1~12.17
- 어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2007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안내

- 기 간: 2007.11.30(금)까지
- 대 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 납부액: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중간예납세액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문 의: 국세청(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 성남세무서 730-6200

| 소비자 Q&A |

미성년자가 길거리에서 할부 계약한 물품을 취소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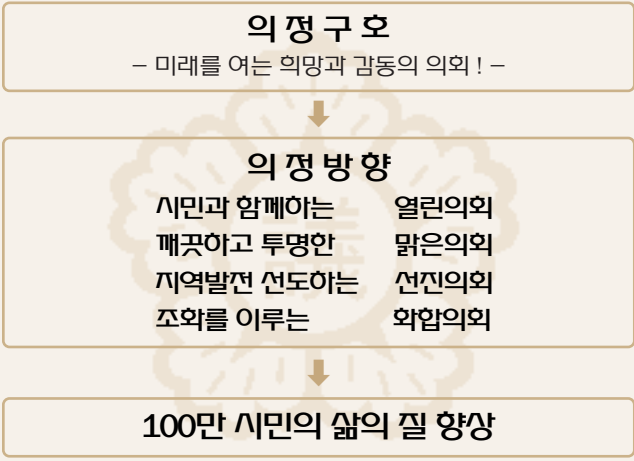


Q '88년 2월생인 대학생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경 종합시장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해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설문조사를 해 준 대가로 다이어트식품샘플을 무료로 준다고 근처에 대기 중인 봉고차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 미리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은 다이어트식품을 권유하면서 구입하기를 종용했고, 결국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약 4개월 동안 부모님 몰래 총 21만4천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5월경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곧바로 계약취소를 해 달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A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불한 물품 값도 부모님 몰래 미성년자가 지불한 거라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한 물품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 반품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일부 업체는 부모님에게 약간의 물품 값을 지불하면 취소해준다고 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돈을 조금이라도 내게 되면 계약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품 값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소비자단체에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

제5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성남시의회(의장 이수영)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48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도 제148회 임시회 결과

연번	안건명	소관부서	소관위원회
1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
5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7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결	"
8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경제환경위원회
9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
10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11	성남시 자원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
12	성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
13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4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5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
16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사회복지위원회
17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18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19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
20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류	"
21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부결	"
2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도시건설위원회
23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	원안가결	"
24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25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 요청에 대한 청원	원안채택	"
26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	"
27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원안가결	성남시립병원 설립특별위원회

공원로 확장공사현장 등 12개소 답사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성남시의회(의장 이수영)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위원들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주요 정책사업 및 주민 숙원 사업의 시행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정확히 판단 검토하는 등 살아있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 답사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답사지역은 공원로 확장공사 현장 및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



▲공원로 확장공사 현장

공사 현장, 태평동-북정동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판교지구-탄천로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등 12개소를 버스투어 방법으로 직접 찾아 나선 것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2명으로 이루어진 답사인원은 7일 오전 9시

에 시청 정문을 출발해 공원로 확장공사 및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사업현장인 충훈탑(태평동 소재) 옆에 마련된 설명장소에서 현장 공사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진척 정도와 공사개요 및 사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등을 살피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 검토했다.

이어 태평동-북정동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및 판교지구 탄천로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답사를 마친 자리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들은 판교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유발처리 및 도심 우회도로



▲태평동-북정동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개설로 시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북정동 성남대로로 신설도로가 연결되어 성남대로를 비롯한 북정동 일대가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당초 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설계변경 검토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및 단대천 복개 현장을 답사 후 7일 하루 일정을 마쳤다.



▲단대천 복개 사업 현장

다음날 8일에는 판교지구 및 위례지구, 도촌 택지개발현장,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을 살펴 보았으며,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개설 터널 현장 및 성남-장호원간 도로공사 현장을 끝으로 모든 현장 답사를 마쳤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현장답사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대비한 현장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된 만큼 현장을 직접 보고 세심한 곳까지 살펴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이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투자 계획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을 적의 진단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이들이 꿈꾸는 맑은 영혼의 소리' 태원고교 모토 오케스트라의 작은 연주회



뿌린 것에 대한 거둠의 늦가을, 10월 30일 오후 7시 고등학교로는 최초로 태원고교(분당 소재) '모토(MOTO) 오케스트라'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3회 모토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2004년에 창단된 음악동아리 '모토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이상은 선생님과 아래 1·2학년생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단원이 다양한 수상경력과 주제가 있는 정기연주회 및 자선 공연으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현악기인 바이올린 파트, 목관악기인 플루트·클라리넷 파트, 타악기인 팀파니·세트 드럼·심벌즈·대북 등 여러 가지 악기로 구성되어 연주된다.

이번 연주회는 비교적 대중과 친숙한 프랑스 군대 행진곡, 메모리, 마이웨이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 서로 다른 악기가 어우러지는 선율을 선보여 마치 우리의 삶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듯했다.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멋진 화음을 선보인 선생님 중창단의 모습도 연주회를 빛내기에 충분했으며, 연주장 밖 '태원 사랑 장학회'의 따뜻한 차 한 잔은 넉넉하고 평온한 또 다른 만남의 장이었다.

연은진(2년) 학생은 이번 연주회를 프로그램 기획부터 연주복 준비까지 하나하나 챙기면서 "매일 방과 후 3시간씩 꾸준히 연습했는데 완벽하진 않았지만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낼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답고 고른 소리를 냈다"며 자랑스러워한다.

많은 연주자들의 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오케스트라인 만큼 서둘러

서 생긴 사소한 동아리원간의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끈끈한 학우애를 느끼는 등 많은 배움과 감동이 함께한 연주회라고 덧붙인다.

12월에 있을 자선연주회 외에도 가까운 일본·중국의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자매결연을 맺어 합동 정기연주회를 갖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그의 옛된 얼굴엔 풋풋한 열정이 가득하다.

그날 때묻지 않은 음악적 에너지로 가득찬 열린 문화공간 성남아트센터에서 아이들이 꿈꾸는 음악 소리를 하나 된 마음과 가슴으로 들었다.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유은실 작가와의 만남

- 책으로 만나는 어린이, 그리고 어른

- 일 시: 11.27(화) 10:00
- 내 용: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만국기 소년> <우리집에 온 마고할미>의 작가 유은실 선생님을 초청하여 작품 탄생이야기 등을 듣고 책을 통해 어른과 어린이가 만나보고 알아가는 시간/ 주요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 대 상: 학부모 80명 내외 11,14(수)부터 방문접수(선착순)

[책! 맛있게 먹자] 도서관탐험여행

- 일 시: 12.8(토) 13:00~16:00
- 내 용: 700언어·900역사지리[요리조리 맛있는 세계여행] '세계음식문화체험전' 음식 통해 세계 여러 나라 문화와 언어 이해하기!
- 대 상: 초등1-2/ 초등3-4/ 초등5-6/ 중학생 각 30명 내외

책 한권으로 나누는 따뜻함 - 이웃돕기 도서바자회

- 일 시: 12.18(화) 10:00
- 도서기증 기간 및 방법: 홈페이지(http://uth.or.kr)에서 확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781-6184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007년 청소년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

- 일 시: 12.1(토) 13:00~17:00 1층 열린마당
- 내 용: 우리농산물·환경친화적 비누, 각종 액세서리, 먹을거리 장터, 문구류 등 판매

제6회 청개구리 3 on 3 농구대회

- 일 시: 12.8(토) 대학(일반부) 오전 10시 ~ 오후 4시
12.22(토) 중·고등부 오전 10시 ~ 오후 4시
- 인 원: 팀당 4명(후보선수 포함)/ 각 부별 20팀
- 접 수: 12.14(금)(대학부는 11.30)까지 선착순 방문접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783-4300 www.tenten21.or.kr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

- 일 정: 2007.11.28/ 12.5/ 12.12/ 12.20 (10:00~12:30)
- 내 용: 재미있게 하는 자녀의 가정학습 방법 (단국대 교육학과 이해명 교수) 자녀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한상담학회 유동수 명예회장) 자녀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지도 (명지대 상담심리 이은경 교수)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지도 (분당서울대병원 홍강의 선생님)
- 장 소: 아람방송 스튜디오(정자역 4번 출구)
- 대 상: 학부모 30여명(무료)
- 문 의: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031-708-1082)
- ※ 특강 수료시 부모집단상담, MBTI, 가족치료 워크숍 등에 참가 가능

청소년 전화 1388

이해명 교수의 맛있는 교육(6)



과외 안 시키고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요즘의 젊은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들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과외가 성행하는 것도 그런 사회 현상 중의 하나다. 맞벌이가 필수가 되어버린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하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은 남이 대신해줄 수 없다. 돈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로마가 망한 이유 중의 하나도 아이들 교육을 남에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들 과외 안 시키고 잘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교육의 지름길이다. 좋은 책을 읽는 아이들은 과외 안 시켜도 공부 잘하고 나중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 세계적인 위인들은 모두 어려서 좋은 책을 읽은 덕택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옥스퍼드(Oxford) 대학 연구나, 한국 과학 영재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독서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이들이 독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 자신이 독서를 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다. 방법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것이다. 부모들은 하루 종일 TV 채널을 돌리면서 아이들보고만 책 읽으라고 하면 읽지 않는다.

부모들이 집에서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같이 책을 읽는다. 즉 책을 읽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집에서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고 가족이 함께 토론을 한다면 금상첨화다.

단국대학교 교수 · 이해명 영재교육연구소 소장
연락처 031)898-4405
홈페이지 www.ihmacademy.com
이메일 tolstory@hanmail.net
저서 <자녀 성공의 key는 아버지가 쥐고 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 등 다수



초현대식 시설 갖춘 중학교 내년 성남에 들어선다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하나로 성남교육청은 최적화된 교육 여건을 갖춘 수진중학교(수정구 수진동), 도촌중학교(중원구 도촌동), 셋별중학교(분당구 수내동)를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는 평준화 교육의 틀 안에서 수준별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목표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해서 건립되고, 교육청이 2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BTL 사업을 통한 신설중학교 건립을 통해 현재의 과대·과밀학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어학실을 활용

한 외국어교육의 강화, 첨단 과학기자재를 활용한 실험과 탐구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교육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도서실에서는 독서 토론 및 눈술교육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학교들은 전교생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다목적 강당과 체육관을 구비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지적체의 균형 성장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공교육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남교육청 780-2500

따뜻한 연말, 나눔의 성남

찬바람을 피해 따뜻한 아랫목을 찾는 계절이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
 작은 마음이지만, 작은 걸음이지만 성남 지역 곳곳에서 나눔의 손길들이 이어진다.
 개인이, 사회단체가, 또 공공기관이 서로의 관심을 나누고 있다.
 꼭 연말이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그리고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는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보자. **박혜경 기자 misop215@yahoo.co.kr**

연중 서로 사랑나누기 안내 및 지원창구 운영 시민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힘이 됩니다.
 • 시청 1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729-2841~3
 • 구청 1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 수정구 729-2841~3, 중원구 729-6210~7, 분당구 729-7210~8
 • 주민센터 1 주민생활지원팀 이웃돕기담당



사랑의 김장나누기
 11월 14일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에 이어 16, 17일엔 태평3동 주민센터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등 김장김치 나누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정노인복지관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12월 15일 오전 10시 수정노인 복지회관에서 연다. 11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1만원, 독거어르신 가정에 배달서비스를 할 봉사자도 모집한다. 수정노인복지회관 731-3393~4



성남시지역사회 '사랑의 지팡이'
 성남시여성사회는 11월 9일 수정구청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지팡이' 40개를 기증했다. 사랑의지팡이는 겨울철 노인들이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목등단한 팔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팀 729-5230



상대원1동 '사랑의 바자회'
 상대원1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10월 26일 관내 기업체 지원으로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상대원동 729-6726



상공인연합회 이웃돕기성금 전달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92년 구성된 상공인 연합회가 11월 7일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백미 125포(20kg)를 기탁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729-2841



고구마로 이웃사랑 실천
 농촌지도자성남시연합회는 지난 5월부터 중원구 갈현동 소재 휴경지 450여평에 농작해운 고구마 2본 분량을 11월 7일 수확, 어려운 이웃 130세대에 15kg 분량을 각각 전달했다. 연합회는 1994년부터 매년 휴경지를 활용, 감자 고구마 김장채소 등을 재배, 어려운 이웃과 시설에 전달해오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도시원예팀 729-4023



사랑의 일일차집
 청송종합사회복지관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화합의 자리로 11월 14일 '사랑의 일일차집'을 열었다. 이날 모인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김장김치, 생필품지원에 사용된다. 714-6333



책테마파크 도서기증 캠페인
 책테마파크는 마음의 양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책선물 캠페인 '책으로 사랑, 행복을 선물하세요'를 11월부터 계속하고 있다. 기증도서는 최근 5년 이내 도서로 책테마파크(화~금 10:00~18:00)나 교보문고 분당점 안내 데스크(월~금 14:00~17:00)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708-3588/9088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한국도로공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남지역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307가구에 연탄 9천 장을 11월 8일 지원했다. 연탄은 11월 28일 배달할 예정이다. 자금은 본사 임직원의 급여공제 기금인 '해피펀드'에서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91년부터 해피펀드를 조성, 매년 연탄나눔 운동을 벌여왔다.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팀 779-4058



독거노인동기 색소폰연주회
 색소폰동호인연합회 윈드피플 이 독거노인동기 색소폰연주회를 12월 11일(금) 분당구청 강당에 서 연다. 대상은 분당 중립노인복지관, 청송노인 복지관, 한솔노인복지관 소속 어르신 600여명으로 점심식사 후 연주회와 선물증정이다. 윈드로 점심식사 후 연주회와 선물증정이다. 윈드 피플은 10월부터 농협하나로클럽 목격리광장에 서 매주 토, 일요일 독거노인동기 모금공연을 총 11회 실시해왔다. 윈드피플 711-3874



소년소녀가장에 도서 전달
 중원구 가정교육시설연합회는 10월 30일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등 평소 책읽기를 좋아하는 10명에게 초등학생 권장도서들 5권씩 각각 전달했다.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729-6251



동료공무원에 성금 전달
 분당구는 가족생계와 어머니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공무원(건축과 근무)을 위해 직장내에서 모금한 1046만원을 10월 26일 전달했다. 분당구 총무과 729-7023

| 건강 칼럼(7) | 감기

콜록콜록~ 감기에 관한 잘못된 상식

1. 감기는 추위 때문에 발생한다?

추위는 단지 인체대사와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감기바이러스의 감염을 촉발하는 간접적 원인일 뿐 직접적 원인은 감기바이러스다. 따라서 날씨가 워낙 추워 감기바이러스가 대기 중에 생존할 수 없는 남극지방에선 감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날씨가 추워도 감기환자와의 접촉만 피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추위 못지않게 중요한 감기촉발요인은 건조한 외부공기다.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 점막에 손상을 줘 감기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울철 감기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해야 하며 보온은 물론 습도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2. 감기예방을 위해선 손을 자주 씻는 것보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감기를 일으키는 감기바이러스 중 가장 흔한 종류가 비점막을 통해 침투하는 라이노바이러스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감기환자의 기침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것보다 감기환자의 손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

즉 감기환자의 콧물 속에 포함된 라이노바이러스가 환자의 손을 통해 감기환자 주변 여기저

기에 산재하게 되고 이를 접촉한 사람이 다시 무심코 자신의 코를 만지게 될 때 감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기예방을 위해선 외출 후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반면 감기바이러스의 크기가 매우 작아 마스크로 이를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마스크는 차가운 외부공기를 따뜻하게 해 주는 보온 효과는 인정되고 있으므로 감기 감염초기 기침 등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3. 감기는 주사가 최고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주사를 신뢰하는 민족도 드물다. 감기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침·콧물로 의원을 찾을 때 주사를 놓아주지 않으면 이내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그러나 주사는 먹는 약이 여의치 않을 때 불가불 선택하는 차선책일 뿐 결코 만능이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투약경로는 입으로 먹어 복용해 약물이 일반음식물과 똑같이 소화관에서 흡수되는 경구투여임을 알아야 한다. 주사는 투여와 동시에 바로 혈관을 타고 인체에 직접 흡수되므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긴 하나 그만큼 인체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 주사제의 성분

역시 대부분 복용약과 똑같은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먹는 약은 무시하고 주사를 선호하는 관습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겠다.

4. 감기에 걸려 열이 심한 아이는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원인인든 38도 내외의 정상체온에서 체온이 올라갈 경우엔 일단 체열을 식혀주는 것이 원칙이다.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는 인식 때문에 고열에도 옷을 두껍게 입고 실내온도를 올려 무작정 보호하는 부모가 많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럴 경우 어린이는 고열로 인한 대사항진과 탈수 때문에 더욱 기진맥진해지고 증상이 악화된다.

열이 심한 어린이는 우선 옷을 벗겨주고 필요한 경우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고루 적셔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얼음물이나 선풍기를 이용한 급격한 체온강하법은 몸에 해로우므로 피하도록 한다. 고열 어린이에게는 충분한 양의 물을 먹이는 것도 강조된다. 탈수예방과 체온저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5. 여름철 충분히 일광욕을 해야 겨울철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감기예방에 관한 일광욕의 건강효과는 피부 밑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D의 합성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영양이 충분치 못했던 과거의 일일 뿐 오히려 영양과잉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먹는 음식만으로도 비타민D의 섭취는 충분하므로 따로 일광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일광욕은 피부암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 피부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햇볕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피부를 위해선 바람직하다. 감기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감기는 평소 인체면역력에 좌우될 뿐 일광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은화 교수 787-2600

※ 무료건강강좌 11.29(목) 오후 3~4시 30분 직장암의 올바른 이해 및 치료 | 문의: 홍보팀 787-1125



올해 가기 전,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2007년 한 해를 한달 남짓 남겨두고 있는 이즈음, 각 가정에서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는가?'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소홀히 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김기선 과장은 안타까워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 1차 건강검진율은 수정구 27.24%, 중원구 30.22%, 분당구 55.89%, 검진결과 유질환율은 수정구 7.31%, 중원구 8.43%, 분당구 4.67%. 수정구·중원구의 경우 유질환율이 높은데도 검진율이 낮아 적절한 시기의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검진 결과 80여만 명이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 및 건강주의로 판정받았고, 29만여 명이 암 의심 또는 암 치료 대상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검진을 받은 사람보다 진료비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검진 지정 병원에 예약 후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검진받을 수 있으니 12월 말까지 꼭 행기도록 하자.

건강검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나 지역세대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검진대상이며 직장 피부양자나 지역세대원의 경우 만 40세 이상인 자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년에 1회 받는 경우, 흡수연도엔 흡수연도 출생인 사람, 짝수연도엔 짝수연도 출생인 사람이 받는다. 당해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경우에 따라 그 이듬해에 받을 수도 있으니 혹시 잊었다면 나중에라도 꼭 받자.

검사항목은 1차 검진으로 혈액 검사·소변 검사·흉부방사선검사·심전도 검사 등 22개 항목,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로 판정된 자에 한해 실시되는 2차 검진은 폐결핵·고혈압·당뇨 등 8개 항목이다.

검진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특정암(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 검사도 한다. 암 검사는 필요한 경우 약간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암으로 판정될 경우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올해부터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1차 검진 결과에 따라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한해 2차 검진을 실시하는 질병발견 위주의 검진체계였다. 반면, 새로 신설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생애 전환기에 해당하는 중년기(만 40세), 노년기(만 66세)를 대상으로 기존의 1, 2차 검진을 통합 조정한 1차 건강검진단을 받고, 모든 대상자가 1차 결과에 따른 전문상담의사의 2차 건강진



단을 통해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연령별 맞춤형 건강진단 프로그램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또한 공단에서는 올해 11월 15일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생후 4개월부



터 만 5세 이하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이며, 성장단계별로 총 7회(구강검진 2회)에 걸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항목은 신체계측, 문진, 진찰 상담 및 발달평가,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예방, 수면, 구강, 취학 전 준비교육)과 치료 구강검진이다. 전국 영유아 지정 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729-0160
www.nhic.or.kr
전미향 기자 mhchun@cans21.net

건강 tip

말기 암환자 임종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계층,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구의 말기암 환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30일 100만원 미만
- 신청방법: 성남시 호스피스센터로 전화 및 방문접수

성남시 호스피스센터 729-3970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3964

겨울철 '뚱보' 탈출, 생활속 다이어트

Diet Go!

차가운 바람에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는 계절이다. 연말모임 등 각종 술자리와 회식이 이어지면서 몸이 더욱 무거워진다. 하지만 체지방 비율이 높으면 마른 사람도 비만일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다. 특히 비만인 경우 운동에 소극적이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며, 살로 가는 음식을 즐긴다. 이런 생활습관으로 결국 섭취한 에너지는 신체의 한 구석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번 겨울에는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 '뚱보'의 위험에서 탈출해 보자.

가까운 보건소 비만교실

우선, 비만자를 대상으로 비만교실을 운영하는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KBS 생로병사의 비밀을 통해 소개된 '죽음을 부르는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분당구보건소는 최근 참가신청자를 모집완료하고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뚱살탈출 비만교실'을 운영한다. 이곳에서 개인별 영양교육이나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보건소 프로그램을 눈여겨봤다가 무료로 이용해 보자.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729-3852/3912/4005~6

겨울운동, 유산소 운동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한다.

겨울운동으로는 몸의 각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과격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이 적합하다.

하루 중 이른 아침 새벽운동보다 저녁운동이 안전하고, 운동량은 이마나 등에 땀이 배면서 옆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하다. 반드시 준비운동이 필요한데 기온이 낮을수록 준비운동은 오래 하는 것이 원칙.

▶**빨리걷기(파워워킹)**= 다른 운동보다 쉽고 안전하면서 효과가 뒤지지 않는 운동방법이다. 하체비만이 심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돼 손발이 저린 사람은 숨이 헉헉 칠 때까지 충분히 걸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걸으면서 보폭을 좀더 크게 하고, 손을 앞뒤로 흔드는 것이 올바른 방법.

▶**조깅**= 가장 일반적인 조깅은 근력이 약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다만 팔 근육 등 상체근육 발달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전거타기**= 상체비만이거나 조금만 운동해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무릎관절이 약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 다만 칼로리 소모가 적은 만큼 약한 강도로 오래 타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눈

싸움은 컴퓨터와 TV, 책상 앞에만 있기 쉬운 자녀들의 소비비만을 막기 위해 추천할 수 있는 '놀이' 같은 겨울운동이다.

▶**실내 운동**= 눈이 펄펄 오거나 추운 날, 야외로 나가기 싫다면 실내운동도 OK. 통풍이 잘되는 곳으로 선택하고 러닝머신이나 스쿼시, 헬스, 검도, 탁구, 배드민턴, 윌라후프 등의 유산소 운동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준다.

▶**수영**= 퇴행성관절염이나 오십견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나 평소에도 몸이 찬 사람은 특히 겨울에는 수영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할인마트에서 장보며 운동하기**= 야외운동도 실내운동도 귀찮다면 생활속 다른 공간을 찾아보자. 이마트나 까르푸, 김스클럽,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에서 장을 볼 계획이라면 빠른 걸음으로 통로를 다녀보자. 카트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도 팔의 근력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자료: 여성조선

이미숙 기자 kuk-whoa@hanmail.net

독자 투고 | 올 겨울, 에너지 절약방법

처음으로 한전 '주부패널'에 참여하게 됐다. 그전에는 그저 무심히 지나쳤을 일도 패널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게 된다.

이제 11월, 아무리 여름이 여름 같지 않고 겨울이 겨울답지 않다고 하지만, 을씨년스런 11월의 찬바람은 더욱 차가워질 것이다.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일반 가정의 경우,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어느 정도 넘어서면 쓰는 양보다 더 많이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난방가스비를 아낀다고 전기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이므로 전기 난방기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또 보일러 온도는 고정해 놓지 말고 외출 시에는 외출기능을 해두어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콘센트는 사용하지 않을 때 빼지 않고도 옆의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가 차단되는 것도 있으니 사용해 보면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

이 밖에도 보일러 점검 및 청소, 문풍지 붙이기, 온수 40도에 맞춰놓기, 내복 입기 등 주위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실내온도 1도만 낮춰도 7%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란다. 올 겨울, 실내온도를 18~20도를 유지하면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실천해 보자!

수정구 단대동 박영이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1) 겨울철 화재예방은 이렇게!

- 장식용 소형전구는 오래 켜두지 않기
- 정전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두기
-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하거나 전문기관의 검사 제품 등 믿을 수 있는 제품 구입하기
- 난로를 켜 채 이동하지 않기
- 잠자리에 들 때는 가급적 난방기구 끄기
- 사용중 기름을 넣지 않기, 급유시 흘린 기름은 반드시 닦아내기

- 석유난로에 기름을 넣을 때에는 난로의 스위치를 끄고 똑바로 놓은 다음 가까운 곳에 인화물질 두지 않기
- 쓰레기통 속이나 화학약품의 저장소 등에 성냥 등 인화성 물질 던지지 않기
- 번개가 심한 날은 컴퓨터·TV 등을 켜지 않기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미리 익혀두기
- 소화기 사용방법 평소 익혀두기

재난안전관리과 안전점검팀 729-3562

겨울철 수도계량기 관리요령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물이 새고 있는지, 보온재(스티로폼)가 있는지 확인 조치
- 보온재는 12월 초순부터 수도행정과(수정구 태평2동 3440번지 대생빌딩 6층)에서 무료 지급
- 복도식 아파트나 빌라 등 벽체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보온
- 옷가지 등으로 계량기함 내부 보온, 동파방지용 열선(시중에서 판매)을 감아 보온한 뒤 계량기함 외부에 보호커버(비닐 등) 부착
- 집을 장기간 비우거나 휴한 중 수도물을 안 쓰는 아간에는 수도물 아주 소량 흘려보내기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점차 뜨거운 물로 수도계량기 녹이기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에서 토치램프 절대 사용금지
- 계량기 연결부위의 고무패킹이 녹아 누수되고, 보호통 내의 스티로폼에 인화 우려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전화

- 주간(평일 09:00~21:00) 수도행정과 729-4071~2
- 야간(평일 21:00~09:00 공휴일 09:00~24:00) 시청 당직실 729-2220~2

※ 2007년도 급수공사 신청= 11월 30일(금) 마감예정이니 건축물 신축 등으로 올해 내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시민은 기간 내에 성남시청 수도시설과(지하층)에 신청바람. 2008년도 급수공사는 2월 25일(월)부터 접수예정.

문의: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729-4091~5

기획연재/ 성남이야기(9)

보통 가족나들이를 하면서 유적들을 찾아보면 바로 옆에 안내판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안내판이 그다지 이해를 돕는데 도움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안내판을 쓰면 좋

이 경우 '마애'란 뜻은 바위에 새긴 불상을 말한다. '여래'는 부처님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은 불상의 자세를 말한다. 서있으면 입상, 앉아있으면 좌상, 누워있으면 와상이다. 그러나 이 망경암 마애여래좌상은 '망경암에 있는 바위에 새겨

입금의 얼굴을 용안이라 했듯이 부처님의 얼굴은 상호라고 높여 부른다. 법의, 부처님의 옷을 말하

정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 결과부좌를 하고 수련할 때는 보통 선정이라는 수인을 취한다. 이는 두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배꼽 앞에 포

들다. 양쪽 어깨를 모두 가린 옷을 입고 있으며 부처님의 일반적인 앉은 모습인 결과부좌를 하고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어 석가모니 부처를 표현하려 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알기 쉽게 풀어주며 이야기해 보자. 몇 가지 배경지식을 첨언하면 이곳은 여말선초에 임금이 친히 거동해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기원한 곳이라 하는데, 명문과 여러 기록에 조선 고종대인 1897년에 이규승이 불상을 만들었다고 한다까지 하면 100점짜리 야밤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형균 · 토지박물관 학예사
738-8995
virocana@hanmail.net

망경암 마애여래좌상

겠지만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규칙 같은 것을 조금이나마 안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예를 들어 성남의 봉곡사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망경암 마애여래좌상' (수정구 복정동 소재)도 불교유적의 이름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가장 앞에 유적이 있는 동네나 절(암자) 이름을 먼저 쓴다. 그 소속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생각하기도 한다.

그다음 나오는 말은 보통 불상을 만드는 방법, 혹은 재질을 나타낸다.

진 앉아있는 부처상'이라는 뜻이다. 망경암 마애여래좌상의 경우 '素髮(소발)에 相好(상호)는 마모가 심해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 法衣(법 의)는 通肩(통견)이며, 結跏趺坐(결가부좌)의 좌상으로 手印(수인)은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은 降魔觸地印(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쯤 되면 일반인에게는 암호수준의 글이다.

하나하나 풀어보자. '소발'은 부처님의 머리모습을 말한다. 간단히 소발은 민머리이고 나발은 곱슬머리다. 상호, 부처님의 얼굴을 말한다.



고 통견은 법의가 양 어깨를 다 덮고 있는 모습을 말한다. 수인은 부처님의 손 모양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나 활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도구이다.

그 수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불상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련하는 과정에서 유리된 수인데 우선 '선

을 하늘로 향해서 배꼽 앞에 포를 하고 수련을 취하던 중 여러 악귀들이 나타나 부처님의 수련을 방해하자 한쪽 손을 풀어 땅을 짚고는(촉지) 땅의 신을 불러 악귀들을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한다.

그래서 이 수인을 보면 그냥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보통 한 손가락이 미묘하게 길게 표현되어 있다. 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수인을 한 대표적인 불상으로 석굴암 본존불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앞의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

"머리는 곱슬이 아닌 민머리를 하고 있으며 얼굴 모습은 오랜 기간 닳아 없어져서 정확한 양상을 알기 힘

찾아가는 길



사랑방 문화클럽 탐방 | 장애인 문화교실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

민화는 조선시대부터 민초들이 만들어 걸었던 그림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한 유산으로서 단순하고 솔직하며 소박하게 표현해 준 하나의 뚜렷한 장르임에 틀림없다. 그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성남시장 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교실에 들어섰을 때 그건 기우였고, 열정어린 모습으로 그림 그릴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장애인들이 여가활동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등 소극적인 활동으로 대부분 소일한다. 선척적인 장애나 중도의 장애라는 이유로 직업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이곳 복지관 문화교실 '겨레그림'은 민화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화욕구를 충

족시키고 자신감을 갖고 사회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민화에 대한 기초와 전문과정 등 주1회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는다.

연1회 지역사회시설에서 민화전시회도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제7회 장애인민화반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유상용 외 10명의 회원이 58점의 작품을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전시했다. "이 기간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소속 밴드가 연주해 주고 공예품도 같이 전시



민화교실을 통해 정서적·심리적·사회적 안정도모와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

해주어 더 빛이 났다"며 사랑방클럽지기로서 기쁨이 컸다고 박순덕(39·사진 뒷쪽) 강사는 환한 웃음을 띠었다.

중도장애인으로 7년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유상용(51·사진 앞쪽) 씨는 밝은 표정으로 "민화교실이 여가활동을 하는 데 많은 의지와 도움이 되었다"면서 다른 회원들의 도구를 살펴 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성인장애인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자존감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 사회적 지지도를 향상시켰으며, 프로그램 이용자간의 상호작용과 우호작용을 형성해 사회적 대인관계의 자조집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박순덕 강사는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여러 장애인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여가활동 기회의 폭이 좁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원들은 우선 "민화교실을 통해 정서적·심리적·사회적 안정도모와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

민화에 관심이 있거나 후원에 관한 문의는 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 박순덕 강사(011-9212-8702)에게 연락하면 된다.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자원봉사센터, 남한산성 문화탐방 및 환경정화 활동

지난 11월 10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e-푸른성남을 가꾸기 위한 남한산성 문화탐방 및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성남시 자원봉사·환경단체 회원, 중·고등학교 학생과 가족봉사단 등 1천여 명의 성남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남한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양지공원·중앙로·약사사·백련사 등 네 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문화해설사로부터 △남한산성의 역사, 약사사·백련사 등 사찰에 대한 문화적 가치 △자연의 역할과 후대까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의무 △야생화 관찰, 나무 쓰임새, 산짐승의 먹이 이야기 등을 배우며 지역 문화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고찰의 기회도 가졌다.

이날 해오름봉사단과 천자봉기동대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안전사고에 대비했으며 성남중앙병원 천사데이 의료봉사팀은 대민봉사활동을 펼쳐 남한산성 등산객 및 나들이 나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날 자리는 각 기관과 단체, 일반시민,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자리였다"며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미있는 자원봉사였다고 평가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757-6226~8
박경옥 기자 qkdl9090@hanmail.net



35년 외길 춤꾼... 이순림 씨 오는 12월 12일 “천년 바위” 앵콜 공연, 시민 성원에 보답 햇불 어린이 무용단 · 아버지 난타 · 미즈 난타... 창단 준비중

우리지역의 최고의 춤꾼 이순림 씨(49·경원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무용과 주임 교수·사진)가 지난 11월 1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천년 바위’라는 제목으로 35년 춤인생 기념공연을 가졌다.

중요무형문화재 처용무(제39호)와 태평무(제92호) 이수자인 이 씨는 이번 공연을 통해 궁궐에서 추는 ‘정재’, 중요무형문화재에 속하는 전통무용, 서민들이 몸으로 전해온 민속무용 등으로 엮은 이야기가 있는 춤으로 한국무용의 진수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씨는 “저의 공연을 보기 위해 객석을 가득 메워 준 시민들이 고맙고 보람을 느꼈다”면서 “일회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고 허전했는데 앵콜공연 요청이 들어와서 12월 12일 성남시민회관에서 공연을 3회(오전 11시, 오후 3시·7시) 더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특별활동반에서 배운 춤 솜씨로 단상에 올라가 춤을 선보일 정도로 끼가 있었는데, 어렸을 적 그 ‘끼’가 평생 그녀를 춤꾼으로 머물게 한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성남의 춤의 대모인 고정금란 씨로부터 본격적인 춤을 배우기 시작해서, 인간문화재 고 김천웅 선생에게 처용무를 이

수하면서 춤의 순수함을, 태평무의 강선영 선생에게선 춤의 멋스러움과 강함도 함께 배웠다 했다.

이 씨는 창작무용의 테마는 주로 여행 중에 아이디어를 얻는다면서 “저는 선천적인 재능형이라기 보다는 노력형이에요. 춤을 추면 스스로 행복하니까 배우고 추고, 연구하고 또 추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요”라고 말했다.

경원대학교 출강 외에도 재단법인 한국춤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 성남시 생활무용연합회 회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춤 보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씨는 96년 성남지역 최초로 ‘햇불 어머니 무용단’을 창단 운영해 오고 있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몸짓이 춤이지요.”

으며, 내년 1월 ‘성남시 햇불 어린이 무용단’ 창단을 위해 올 12월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무용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 난타’와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즈 난

타’ 창단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언제나 활기차고 늘 바쁜 걸음인 그녀가 쉬는 날은 무엇을 할까? “주부니까 집안일 하죠.”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 이 씨는 말간 눈빛으로 답했다.

여행을 즐기고, 취미로는 골프를 배우며 작은 딸 아이와 이따금 골프를 치고 있다는 이 씨.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꿈은 ‘우리 춤 기념관’ 건립이라며 “저는 춤꾼이에요. 춤은 제 인생이고요. 인간의 욕망, 야망, 분노, 그리움, 사랑 그 모든 것을 달랠 수 있는 춤은 앞으로도 계속 제 삶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701-1447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세상을 깨끗하게 생활을 풍요롭게” 기업의 사회공헌, (주)크린토피아 세탁봉사단 LOVE CLEANING 탄생

“우리 봉사단은 무료 세탁 봉사를 실시함에 있어 희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희망과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선서합니다.”

(주)크린토피아(중원구 상대원동 64) 본사 임직원들과 지사장이 참여한 선서(신규섭, 김유영)에는 아름다운 사회를 가꾸고자 하는 사랑과 봉사정신의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세상을 깨끗하게 생활을 풍요롭게”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출발한 (주)크린토피아(대표이사 이범택)는 사회복지시설과 크고 작은 시설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각종 빨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무료 세탁봉사단(봉사단장 신우창)’을 탄생시켰다.

2002년부터 매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된 의류 5만여 점과 성남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의류·침구 등을 무료 세탁해 왔으며, 2006년에 크린토피아 사랑나눔기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시설 침구류 세탁과 10월 충북 제천 중증장애인 시설인 하나 의집 의류 및 침구류 무료 세탁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전달했다.

그동안 세탁봉사 외에도 농촌돕기를 해 왔지만 ‘Love Cleaning’ 발족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인재육성과 사회공헌’이라는 경영철학에 따라 각종 교육과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주)크린토피아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전화 신청을 통해 적합대상을 검토한 후 Love Cleaning 봉사차량이 출동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주변의 가까운 지사에서 세탁해 배달하는 형식의 찾아가는 서비스 봉사를 실천하게 된다.

전국 50개 지사로 확대 실시될 크린토피아의 Love Cleaning은 더 넓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깨끗한 세탁물



을 제공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문의: 홈페이지 www.cleantopia.com
전화 1577-4560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혜란 교수 퓨전 창극 ‘Love in Asia’ 대본 맡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병원의 현직 의사가 구상한 색다른 참신한 연극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퓨전창극 ‘Love in Asia’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재직 중인 양혜란 교수의 대본을 한 국전통문화예술단 ‘소리나루’와 극단 ‘독무’에서 공동 연출한 작품으로, 11월 25일(일) 오후 3시, 6시에 경기도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별무리극장에서 경기문화재단과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선보인다.

퓨전창극 ‘Love in Asia’는 2007년 경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공모’에 당선된 양혜란 교수의 작품으로, 병원에서 만난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시집 온 아시아 지역의 며느리들과 전통을 고수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극적인 화해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양혜란 교수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 이민자들이 더 이상 남이 아니며, 그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당당하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자라나야 하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 더 나아가서는 가족으로서 받아들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 판소리극과 뮤지컬을 접목시켜 노래와 대사, 춤이 한데 어우러진 퓨전창극인 이번 공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새로운 장르이기도 하다.

분당서울대병원 홍보팀 787-1126, 1122



방울 토마토 살린 연탄 화덕

“불이야, 불!! 현태야! 현태야! 큰일났다. 하우스에 불이 났어! 불이야, 불!!”

1993년 1월, 컴퓨터도 없고 피자도 없는 시골에서 어떻게 사냐고 투정 부리던 아이들을 달래며 귀농한 우리는 수경재배로 방울토마토를 키우기로 하고 600평의 논에 거액을 들여 자동식 비닐하우스 5동을 지었다.

하지만 3년 만에 불이 나 하우스 5개 동 중 2개가 타버렸다. 더 큰 문제는 난방을 담당하는 중앙 열공급 장치가 있던 1동 하우스가 불타 버려 나머지 3개 동도 전부 얼어 죽을 상황이었다. 가족 모두 망연자실했고 남편은 하늘만 바라봤다. 어쩌나, 어쩌나... 나도 발만 동

동 굴렀다. 그때 옆에 있던 부녀회 명주 엄마가 소리친다. “아름이 엄마, 그냥 있을 꺼? 빨리 읍내 가서 연탄하고 화덕 사다가 불 피워. 나머지 3개 동 방울토마토는 살리고 봐야 할 꺼야냐?”

맞다, 연탄이 있었다. 경운기를 끌고 읍내에 간 우리는 화덕 15개를 사서 1동에 5개씩 넣고 연탄을 피우기 시작했다. 전기장치 수리가 끝나고 제대로 재가동할 때까지 3~4일은 연탄화덕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연탄이 다 타서 꺼질 때마다 갈아주기로 하고 가족들은 순번을 정했다. 남편과 나는 그날 밤 뜬눈으로 지새웠다. 백년 같은 첫날밤을 무사히 보내고 아

침에 나가 보니 추운데도 불구하고 화력 좋은 연탄 화덕 덕택에 방울토마토들이 씩씩하게 살아있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마을 특용작물 작목반장님은 경운기에 연탄 100장을 실어왔다. “이거 작년에 사놓은 거라 잘 말라 있어서 잘 타고 화력도 좋아” 하며 연탄을 내려놓는다. 고마워서 눈물이 쏙 빠졌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위기를 넘겼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지금은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 화재 사건, 그 순간의 위기를 넘겨 지식 같은 방울토마토를 살려 준 연탄의 위력을 잊을 수 없다.

유병숙·수정구 사송동

엄마는 연탄 화덕에 풀빵을 굽고 오뎅과 떡볶이를 만들어 파신다. 벌써 3년째, 오전 일찍부터 밤 12시까지 몸이

로 수거해 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엄마가 포장마차를 하기 전까지는

가는 경기 침체의 늪이 서민들의 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다는 뉴스를 쏟아낸다. 연탄은 괜찮은가 보다, 다행히도,

이 팍팍한 서민들의 고달

픈 삶이 언제쯤 가실지

모른다는 한숨이 나

왔지만 그래도 내

일을 기약하며 대

학 다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사시

는 엄마를 생각하며

힘을 낸다. 별건 열기를

내뿜으며 진중하게

오래도록 활활 타는 연탄의

불꽃처럼, 우리 엄마의 장사도

잘되고,

아버지가 다시 시작한 사업도

하루빨리 일어났으면 하는 희망을

이기훈·수정구 태평4동

엄마의 포장마차

최근만근 피곤할 테지만 참고 견디신다.

3년 전 아버지께서 하시던 인테리어 사업이 실패했다. 빚이 늘어났고 집이 헐값에 팔렸다. 셋방에 나왔으며 엄마가 선택하신 마지막 생계수단은 풀빵과 오뎅 포장마차였다.

나는 연탄 배달부. 엄마의 포장마차에는 하루에 8~10장 이상의 연탄이 필요했다. 학기 중에는 짬짬이, 방학 기간 동안엔 모든 연탄 배달과 치우기가 내 임무다. 엄마한테 하루 한 번 연탄을 공급하고, 다 태운 연탄재는 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연탄이었다. 그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일 줄은 생각이나 했을까. 가스는 연탄에 비하면 몇 곱절 비싸니 엄마에겐 연탄이 더없이 고마울 뿐이다.

고단한 일상, 엄마 곁에서 말벗 역할을 해주는 라디오에서는 기쁨과 가스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갈수록 깊어



자취방 연탄 수호 작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 시절, 친구와 함께 학교 주변 오래된 한옥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방문 옆 작은 찬장 하나를 두고 그 아래 석유곤로와 연탄 아궁이 하나가 부엌살림 전부였다.

밥이야 주말에 한번 해서 24시간 코드만 꽂아두면 문제없었지만, 연탄은 자칫하면 꺼지기 십상이었거나와 아궁이 곁에 쌓아둔 곁은 연탄 갈무리가 참 힘들었다.

돈이 늘 궁해서 보통 20장정도 쌓아 두는데 가끔 한두 장씩 비는 것 같았다. 가난한 우리 살림을 누가 탐하는 걸까? 실망과 괴팍한 맘에 작전을 짰다. 근처 페인트 가게에서 흰색 스프레이를 잠시 빌려다 부엌에 쌓아둔 연탄 밑바닥 구멍 속에 뿌린 다음 곁에 보이는 부분은 칼로 가볍게 긁어냈다. 이후 날마다

쌓여진 연탄 재고를 정확히 봐두고 방을 나선 다음 귀가하면 이상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기를 이삼 일, 마침내 연탄이 하나 사라졌다. 그 밤 우리는 드라마 소리가 방마다 넘칠 시간에 살금살금 다른 방 연탄재고품들을 하나씩 들춰내 플래시로 바닥을 살피며 수색했다.

방마다 다 뒤지고도 답을 못 찾은 우리 벌써 연탄이 아궁이에 들어갔을 거라며 포기하려다 문득 주인댁 뒤뜰에 쌓여있는 연탄에 생각이 미쳤다. 혹시 하며 살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알토란 같은 연탄 한 장이 거기서 귀양살이하고 있을 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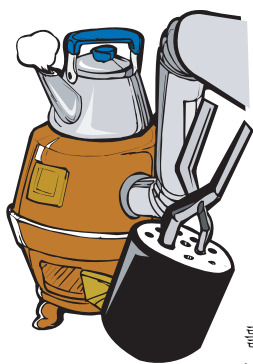
어찌할까? 주인과 싸움을 벌여봐야 우리에게 뭐가 득이 될까 싶은 맘에 접

잖은 방법을 쓰기로 했으니, 연탄더미를 덮을 만한 크기로 신문지를 이어 붙여 덮개를 대신하고 그 덮개 안쪽에 공고문을 써 붙

였다. <우리 연탄은 위치추적장치를 달았으니 그만 가져가세요. 다 알고 있어요.> 공연히 다른 이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나름대로 고민한 작품이었다.

다행히 이후 연탄 분실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해 겨울을 넘긴 이듬해 우리 각자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났으니, 돌아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연탄의 온기로 겨울을 나던 마지막 시기였다.

서정동·분당구 서현동



12월의 서평

분당도서관 사서가 전하는

흔들리는 이는 빼야해!

「사라진 햄스터 레오」와 표제작인 「흔들리는 이는 빼야해!」로 이루어져 있다.

「사라진 햄스터 레오」는 옆집 할머니가 양로원에 가면서 말긴 햄스터 레오를 펠릭스와 프란치스카가 기르게 되면서 일어나는 소동을 그리고 있다. 학교 전사회에 데려갔다 행방 불명된 레오 때문에 아이들은 슬픔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특별한 곳에서 다시 레오를 만나게 되어 안심하고 기뻐하는 이야기이다.

「흔들리는 이는 빼야해!」에서는 찻니가 흔들리는 마르틴이 등장한다. 치과에 가기 싫은 마르틴은 딱딱한 빵 깨물어 먹기, 문고리에 실 묶어 놓고 할머니 부르기, 창밖으로 실 묶은 돌 던지기, 말 꼬리에 이 묶어 놓기까지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펜치보다는 치과에 가기로 결심한 마르틴은 치과에서 아프지 않고 잠깐 따끔하고는 저절로 찻니가 빠진다.

두 이야기 모두 어린이들이 아끼는 것이 사라지거나 무서운 곳에 가기 싫어 두렵고 설레는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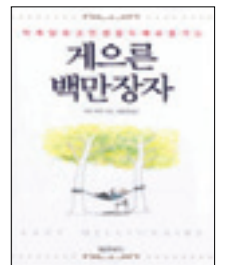


저 자: 빌리 페르만
출판사: 느림보
출판년도: 2007년

게으른 백만장자

게으른 백만장자란 제목부터 흥미를 끄는 책이다. 게으른데 어떻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만장자 마크피셔는 이 책에서 새로운 부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11가지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항상 일에 치이며 일상에 지쳐간다고 생각될 때 이 책을 읽는다면, 현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저 자: 마크피셔
출판사: 밀리언하우스
출판년도: 2007년

일반

내 안의 열일곱

내 안의 열일곱. 누구에게나 십대 그쯤의 다양한 경험은 성장한 후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 책은 현재는 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며, 하자작업장학교(대한학교)의 담임으로 2년간 지냈던 저자가 쓴 것으로 학교에서 만난 15명의 학생들과 겪은 성장통을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10대의 학생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 저자 자신의 성장경험을 고백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 줌으로써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 청소년들이 읽으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저 자: 김종휘
출판사: 산티
출판년도: 2007년

테마 (에세이)

월별 권장 도서목록은 분당도서관 홈페이지(www.snbundanglib.or.kr)에서 볼 수 있다. 또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bundanglib@hanmail.net)하면 월별 목록과 서평자료를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신청시 본인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적을 것)

분당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662~7

‘독자 마당’ 안내

다음호에는 ‘올해 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이야기를 받습니다. 수필 외에 (비전성남)을 보신 후 독자 소감이나 의견을 추가로 받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소와 연락처 명시 바람)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마감: 매월 12일까지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 이메일: snvision@cans21.net • 전화: 729-2075~6

정보나눔

보내는곳 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성남시청 공보담당관실 문의처 <비전성남> 편집실 전화 729-2075~6 팩스 729-2089 이메일 snvision@cans21.net/ snvision@hanmail.net

12월 19일(수)은 제17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733-122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법 신고·제보

-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
- 선거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사전선거운동
-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 신고 112, 선거사법처리상황실 750-4367
- ※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 ※ 신고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최고 5억원)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설정

- 기간 : 2007.11.21~12.19
- 내용 : 책자형 선거공보 우편물과 투표 안내문이 우편함에 배달될 시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조기에 수령
- 성남우체국 우편물류과 734-0776

모든 범죄는 112로

- 범죄 피해 및 범죄 목격 즉시 신고
-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신고
- 범죄 신고인 비밀·안전 보장
- 허위·장난·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 자체
- 경찰 민원 정보센터 1566-0112
-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경찰서 733-0012

군무이탈자 자수 권유

- 대상 : 군 복무중 부대 군무이탈자
- 혜택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최대한 관용
- 자수기간 : 2007.11.1 ~ 11.30
- 제55보병사단 헌병대장 322-111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

- 신고 :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성범죄 경력조회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예정)자 포함 (근거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729-3033

저수조 수질검사

- 대상시설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
- 검사시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 검사항목(7개): PH, 탁도, 잔류염소,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 일반세균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 대상시설 : 국·공립시설 연면적 5,000㎡이상 시설, 연면적 6,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 검사시기 : 준공 후 5년 경과한 날부터 1년 주기로 실시
- 검사항목(7개): PH, 탁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실시주체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수와 수질시험팀 729-4148-9

성남가정법률상담소 무료 법률상담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 성남가정법률상담소 707-6661~2

「건강한 가정만들기」 부부 캠프

- 일정 : 2007.12.8~9 (1박2일)
- 대상 : 2004 ~ 2007년 본 상담소 건강가정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부
- 장소 : 경기도 양평 양평밸리
- 접수 : 선착순 10쌍 부부 (무료)
- 성남가정법률상담소 707-6661~2

동절기 가스사고예방 및 가스안전사용

- 시설점검 : 배기통, 보일러, 환기구
- 대한도시가스(주) 02-3410-8345
- http://daehancitygas.com

미혼모 시설 무료 입소, 분만 상담

-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혼모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에 입소하여 무료로 분만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sookgreen@hanmail.net
- 동방사회복지회 성남아동상담소 080-747-5453

성남의용(여성) 소방대원 모집

- 모집인원 : 00명, 연중(수시)
- 임용기준 : 성남시 거주자 및 희망자,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이 있는 분, 구급대 및 구조대의 자격이 있는 분
- 구비서류 : 등본1통, 건강진단서 1부, 이력서, 입대원서
- 성남소방서 방호구조과 720-0312

실버 봉제의류 기술 수강생 모집

- 교육과정 : 의상디자인, 홈·실용 패션, 디자인 CAD,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반
- 교육기간 : 2007.12.3~08.2.(3개월)
- 접수 : 개강 전까지 선착순
- 수강료 : 월 3만원
-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 777-5044

'사랑의 김장나누기' 참여자 모집

- 행사일시 : 2007.12.15.(토) 10:00~
- 행사장소 : 수정노인복지회관내
- 모집기간 : 11.30 (금)

- 봉사내용 : 독거어르신 가정에 배달서비스(800가정)
- 참가비 : 10,000원(배추 및 양념구입에 사용)
- 봉사활동 참여가능, 봉사활동 인증확인
- 수정노인복지회관 731-3393~4

겨울 방학 영어나라 학생 모집

- 성인영어 : 기초·중급·고급반
- 원어민영어나라 : 유치부,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부, 성인반
- 원어민 영어나라 학부모 영어 무료특강
- 교육감 지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 창세학교(수정구청 옆) 744-7004

'안전 119' 상시 운영

- 일상 생활주변에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소규모 주택, 축대·옹벽, 붕괴, 균열 등)에 대하여 무료 안전점검 실시(※ 아파트, 연립주택(20세대이상), 소송관련, 공사장피해분쟁, 법적점검은 제외)
- 위험요인발견 → 점검요청 → 안전점검 → 결과통보 → 보수보강
- 재난안전관리과 안전점검팀 729-3563, Fax 729-3539

성남시 자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 홈페이지(<http://www.cans21.net>/유관기관 안내/ 정수과) 매월 공개.
-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에 정수된 수돗물이라도 각 가정으로 급수되는 과정에서 배수관 및 옥내배관의 부식·노화정도, 물탱크 청소 상태 등에 따라 수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수돗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요금문의 729-4061 누수사고 729-4111
- 정수과 수질시험팀 729-4145

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처리(SPEED-CALL) 안내

- 전기사용 중 고장·정전 등 불발사고시 24시간 즉시 출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용설비(주택)에 한해 무료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성남지사 1588-7500

원클릭, OK! 몰랐던 토지찾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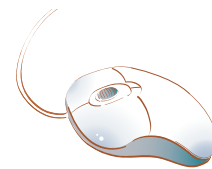
- 운영기간 : 10.10~12.31(3개월) 한시운영
- 서비스내용 : 본인명의 토지조회 및 공동주택 소유현황
- 조회방법 :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이용 조회(무료)
- 행정자치부 02-2100-2114

정보나눔은 공익성이 있는 알림 소식에 한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12일까지 접수받으며 <비전성남>은 25일에 배부됩니다.

<비전성남>은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 '날씨정보' 아래 '비전성남(시정소식 안내)' 클릭 → PDF신문보기

12월 시민정보화 무료교육 안내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전화번호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전화번호
수정구청	오피스 기초	성남시민	12.3~12.14	22	11.15(목)부터 전산통신팀(4층)	729-5075	중원도서관	엑셀, 파워포인트 입문	성남시민	12.4~12.28	30	11.26~11.28 인터넷 선착순 접수	정보봉사팀 752-3916
	홈페이지 디자인												
	뉴스버세대를 위한 인터넷 활용												
중원구청	인터넷 중급	성남시민	11.26~12.7	25	11.19(목) 09:00~ 방문, 전화접수 4층 전산통신팀	729-6078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직장인을 위한 문서작성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3개월(월·수·금)	24	수시모집	732-6884
	컴퓨터 기초												
	인터넷 기초												
	컴퓨터 기초		12.10~12.21	20	11.27~11.29 안내대, 홈페이지 접수	워드자격증							
	인터넷 기초												
	인터넷 중급												
수정도서관	엑셀 중급	성남시민	12.4~12.28	30	11.27~11.29 안내대, 홈페이지 접수	743-9600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인터넷	3개월(화·목)	24	수시모집	732-6884	
	컴퓨터·인터넷기초												
	포토샵 II												
수정도서관	직장인 한글 2004	성남시민	12.8~12.29	20	11.27~11.29 안내대, 홈페이지 접수	743-9600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ITQ 어린이반	3개월(월·수·금)	18	수시모집	732-6884	
	직장인 한글 2004												

통·반장님! 비전성남 배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동네에서 문화향기가 솔솔~ 은행2동 예술놀이터 “풀장환상”

자발적 모임, 홈페이지 개설... 주민 소통 활발



▶ 깔깔마녀와 동화책 모임



▶ 풀장 안에서 열린 베품시장

나뭇가지마다 ‘예술 수영장’의 이야기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단풍과 함께 이 늦은 가을을 물들인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린 공간은 어느새 낯고 허름함이 사라지고, 마을만이 지닌 형형색색 독특한 사연들이 예술 문화로 재생되고 있다.

은행2동 주공아파트 ‘풀장환상’ 20년 동안 야외수영장이라기보다 창고처럼 방치돼 있던 은행주공 아파트 내 야외수영장이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주민들의 모임과 프로그램을 통해 환상적인 문화놀이터와 예술이 만들어지는 재미있는 야외수영장이라고 주민들

이 붙여준 그곳 이름은 ‘풀장환상’

지난해 태평4동을 시작으로 진행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공모에서 은행주공부녀회가 선정되면서 이 작업이 시작돼 11월 말 완성된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동네는 3년간 총 5곳으로 예술가와 문화기획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해 만남·소통·놀이를 통해 그 마을만이 간직하고 있는 독특함을 예술적인 모습으로 재생시키며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간다.

예술이란 ‘그저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술이란 ‘직접 발굴하고 창조해가며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이

라고 박연숙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말한다.

은행2동 주공아파트의 우리동네 벽화 그리기, 우리동네 이정표 만들기, 문패 만들기 등은 마을 주변의 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 은행주공을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함으로 채워가는 창조적 활동이다.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새로운 예술 아이템을 제시하게 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지점도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초등학교 3학년 유진이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점도 동아리, 포크아트 동아리 외에도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엄마들의 대화 속에서 ‘깔깔마녀

와 동화책’ 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임으로 하고하는 어린이들에게 마녀복장으로 깜짝쇼를 펼치는 등 지금은 공연동화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등 적극적이다.

물이 비워진 풀장 안에는 낙엽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위에서 공놀이도 하고 베품시장도 연다. ‘담요극장’이 열리는 날 저녁에는 주민들이 모여 고무마를 구워먹으며 풀장에 누워 밤하늘을 천장 삼아 담요를 덮고 영화를 관람하면서 ‘씨네풀 담요극장’이란 또 하나의 영화분석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홈페이지(www.art-pool.or.kr) 개설로 주민 소통 활동도 왕성하다.

무관심 → 호기심 → 참여 → 적극성... 주민들의 반응, 머릿속에 잠재돼 있는 아이디어는 마을문화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무궁무진한 예술 문화로 창조된다.

태평4동 ‘예술, 태평4동에서 노닐다’, 상대원동 ‘예술공간’, 신흥3동 일변가 종합시장 ‘젊음의 거리 축제’, 은행주공 ‘풀장 환상’...

다음 차례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동네가 아닐까? 성남시 전 지역에 예술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희망해본다.

www.art-pool.or.kr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의 해설이 있는 송년음악회

- 일 시 : 2007.12.23(일) 오후 5시
- 장 소 :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 관 람 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 공연시간 : 110분(휴식시간 15분 포함)
- 예 매 :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1588-7890
성남문화재단 www.snart.or.kr 783-8000
- 문 의 : 성남시민회관 729-4835~6

레퍼토리

- 아담(1803-1856) 오! 거룩한 밤 (Sop. 오은경)
이 곡은 구세주 예수의 탄생을 노래한 것으로 크리스마스 전날 밤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 모차르트(1756-1791) 모테트 <엑셀사떼, 유빌라떼> 중 “알렐루야” K.165 (Sop. 오은경)
모차르트의 유명한 이 콘서트 아리아는 1773년 1월 테이티노 수도원 참사 회원의 미사를 위해 즉흥적으로 작곡되었다. 이 곡은 2개의 아리아와 그 사이의 레치타티보, 그리고 마지막의 화려한 알렐루야로 이루어져 있다.

- 하이든(1732-1809) 교향곡 제45번 f# 단조 <고별>
1766년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 자국 받은 에스테르하지 후작은 별궁을 지어 전속 음악기부만 아니라 하인들까지도 6개월 이상을 가족들과 떨어져 그 안에서 보내게 했다. 단원들의 불만이 많아짐에 따라 하이든은 이를 풍자해 탄원서 대신 음악으로 표현해냈다. 하이든의 마음을 꿰뚫은 후작은 바로 다음날 단원 전원에게 휴가를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 곡은 ‘촛불 서곡(Candle Overture)’이라고도 부른다.
- 베토벤(1770~1827) 교향곡 제8번 F 장조 Op.93
1812년 베토벤이 42세 때에 완성한 곡으로 그의 원숙기에 속하는 작품이다. 흔히 이 교향곡이 소규모로 돼 있다고 해서 소교향곡이라고도 하지만, 고전적으로 압축시킨 그의 음악이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환희와 유머에 찬 경쾌한 맛이 풍겨, 기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숙기에 속하는 자신에 찬 명작이다.

출연진

- 음악감독 겸 지휘자 금난새
-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Soprano 오은경



미리 보는 성남아트센터 연말 공연

- 성남시립교향악단 제48회 정기연주회= 12월 4일 콘서트홀
- 성남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12월 12일 콘서트홀
- 성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2월 13일 오페라하우스
- 데뷔 40주년 맞이 조용필 콘서트= 12월 4~8일 오페라하우스
- 장애우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12월 16일 콘서트홀
- 마티네 송년음악회= 12월 20일 콘서트홀
- 크리스마스 가족 퓨전음악회= 12월 22~23일 콘서트홀
- 호두까기 인형= 12월 21~25일 오페라하우스
- 나눔과 배려를 위한 아름다운 음악공감 <Sumi Jo & Winners>= 12월 27일 오페라하우스

성남아트센터 783-8000
이길순 기자 eks323@hanmail.net